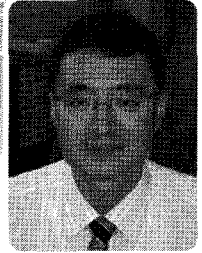


양돈산업 결산 및 전망



민 승 기

천하제일사료 양돈PM
부장

2010년은 연초부터 포천, 연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긴장 속에서 한 해를 시작했고, 신속한 초동방역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잦아들던 질병이 4월에 중부지역에서 다시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태를 맞는 듯 하였으나 더 이상의 발생 없이 최근 구제역 청정국가를 다시 선언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몇 일 전 안동에서의 구제역 양성 발생과 반경 3km 이내 우제류 23,000여두의 살처분 조치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악성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들어났다.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에 대한 경과는 추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늘 그랬듯 악성전염병(구제역, 가금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등)은 일시적으로 육류 소비량을 감소시켜 해당 산업(축종)에 단기간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 최근 소비자들의 악성 전염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체에 무해한 악성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고 안전성을 향

보하는 일에 양돈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올해는 환율과 곡물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고돈가 행진을 계속하면서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반면 돼지고기 수입량은 감소하였고, 2009년 다소 위축된 돼지고기 소비량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안정, 호황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한-EU FTA 등으로 인한 향후 수입둔육의 증가는 계속되는 위협으로 남아있다. 지금 대한민국 양돈산업에 닥친 현안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함께 무엇보다 돼지고기 소비량에 대해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는 유럽 및 북미의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남미 및 중국의 경우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40kg가 넘는다.

가까운 일본도 돼지고기 소비량이 25kg에 육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변화하면서 전체 육류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다 악성 전염병(구제역, 가금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주춤하였고, 유럽 및 미국의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돼지고기 소비량 증가가 시원치않다. 그리고 좀 이른 느낌이 있는 웰빙바람으로 육류 소비는 쉽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량은 빠른 시일 내에 20kg, 25kg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우리 대한민국 양돈인이 해야 할 일은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돈육 "한돈"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EU, 한-미 FTA로 인해 다소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FTA로 인해 그간 부과하던 관세 25%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돈육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양돈산업이 총체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수입 삼겹살의 도매가격은 국산 삼겹살 도매가격의 1/2수준 이하이다. 여기에 관세 25%가 철폐되어 가격이 좀 더 떨어진다고 돈육 수입량이 증가하고 돈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국내 양돈산업이 붕괴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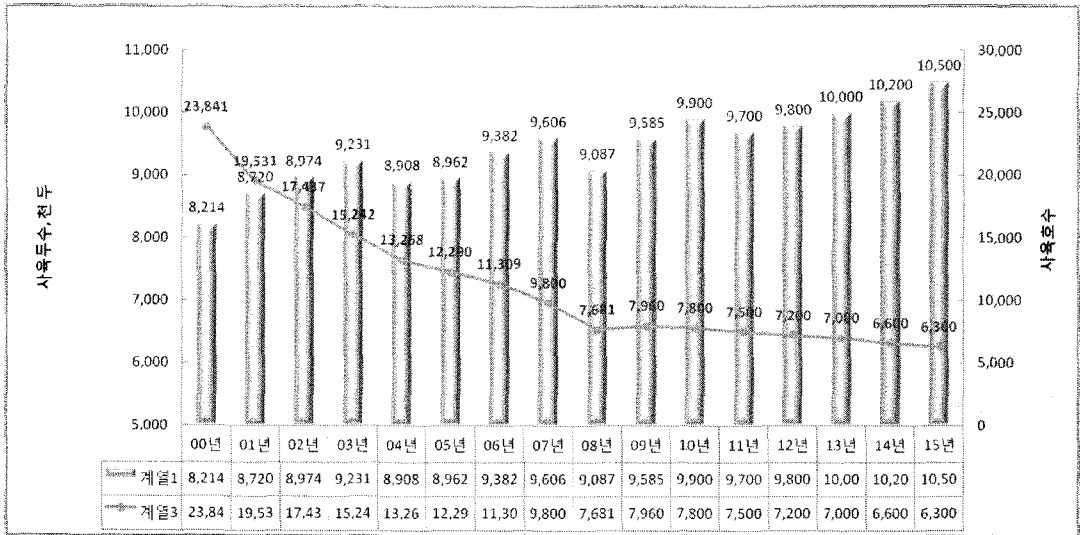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비싸서 소비량이 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산돼지고기의 도매/소매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한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FTA가 아니더라도 멀지 않은 미

래에 돼지고기 식문화가 바뀌고, 국산품에 대한 국민의 정서가 변하면서 수입육은 점차 증가하고 돈가가 하락 안정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한데 그 때 생존할 수 있는 생산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은 앞에 언급한 악성 전염병으로 다소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인 사육두수가 증가 되어 전체 양돈산업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2009년 대비 소비량도 소폭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장 내적으로는 이유후 자돈 폐사율이 조금 이나마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개선되었고, 2년간의 고돈가로 농장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양돈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여전히 여러가지 당면과제들이 산재하여 있다.

2011년 7월 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에 따른 대응 방안 간구,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 중단 등 친환경 축산을 위한 준비,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업 면허제 및 돼지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의 준비, 유럽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법의 국내 적용시 발생하는 비용 및 생산성 저하문제 해결, 15~16두 수준의 MSY(모돈당 연가 출하두수) 개선을 위한 노력, 우수 종돈 및 종돈장 육성, 현장 인력 확보 및 우수한 현장 인력 교육 등 산업과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장 및 관련 종사자들의 합의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2년 여간의 고돈가로 인해 대한민국 양돈산업은 새로운도약을 위한 밑천이 마련된셈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10년 양돈



<그림 1> 사육두수 현황 및 향후 사육두수/호수 전망(2000년~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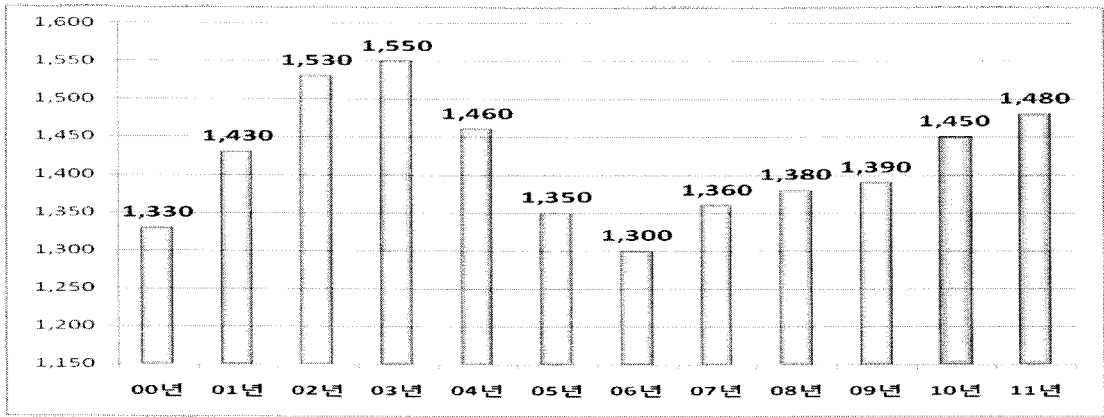
산업 현황을 돌아보고 2011년 양돈산업을 간단히 전망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2009년 양돈 사육두수 현황 및 전망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돈 사육두수는 2007년 960만두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하다 2009년 연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올 9월에 1,000만두에 육박한 990만두를 기록하였다. 고돈가로 인해 사육두수의 감소도 전년 동월 사육두수 7,837호대비 불과 100여호가 감소한 7,715호였다. 호당 사육두수 또한 1,280호로 증가하였다. 올해 사육

두수 1,000두를 예상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한 돈가 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돈육 소비량이 아직 포화상태가 아니고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1,000~1,100만두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돈가의 폭락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돈육 생산을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농가 호수는 6,000~6,500호를 유지하면서 농가당 사육두수가 1,500~2,000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도축두수 현황 및 전망(단위, 만 두)

2. 돈육 공급량, 수입량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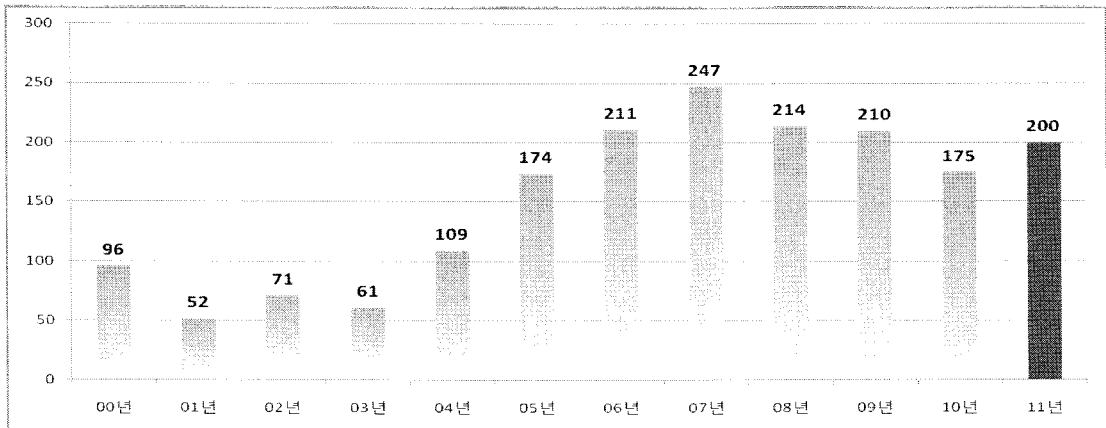
1) 도축두수 및 국내산 돈육 공급량 현황 및 전망

2010년은 사육두수의 증가와 생산성의 향상, 이유후 폐사율의 감소로 도축두수가 약 1,450만두내외로 증가, 2009년 대비 약 4~4.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에도 사육두수의 증가와 생산성의 향상으로 국내산 돈육 공급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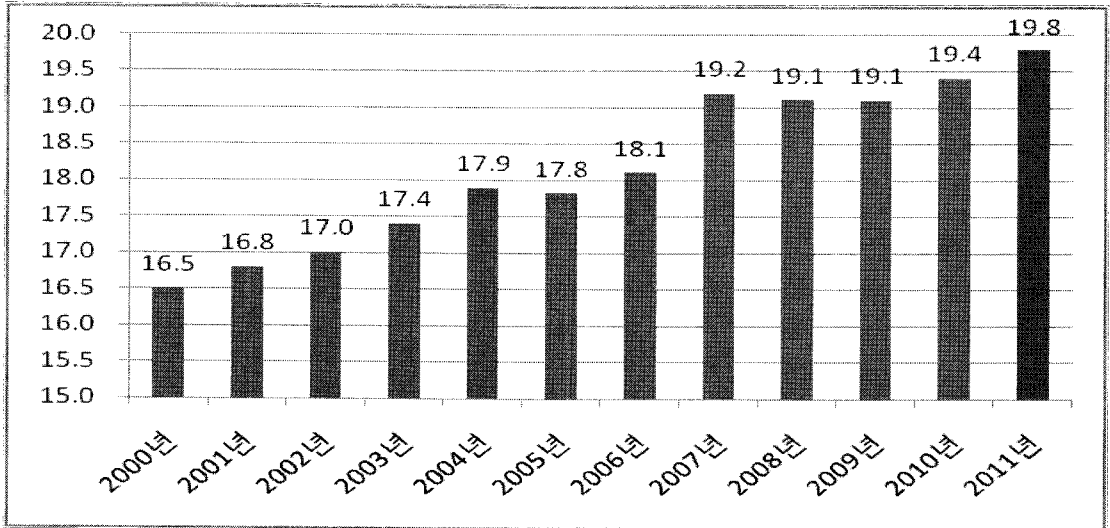
2011년 예상도축두수는 2010년 대비 2~3% 증가하여 약 1,480만두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 도축두수 현황 및 전망)

2) 돈육 수입량 현황 및 전망

올해는 국내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환율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돈육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돈육 수입업체의 감소, 미국 및 유럽의 돈육 부족으



<그림 3> 수입돈육 현황 및 전망(단위, 천 톤)



<그림 4> 최근 10년간 국민 1인당 돈육 소비량(단위, kg)

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 2009년 대비 돈육수입량이 17%(추정) 감소하여 175,000톤에 그쳐, 국내산 공급량이 꽤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돈가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1년은 환율 하락 안정과 고돈가로 인해 다시 전년수준으로 회복하여 약 200,000톤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수입돈육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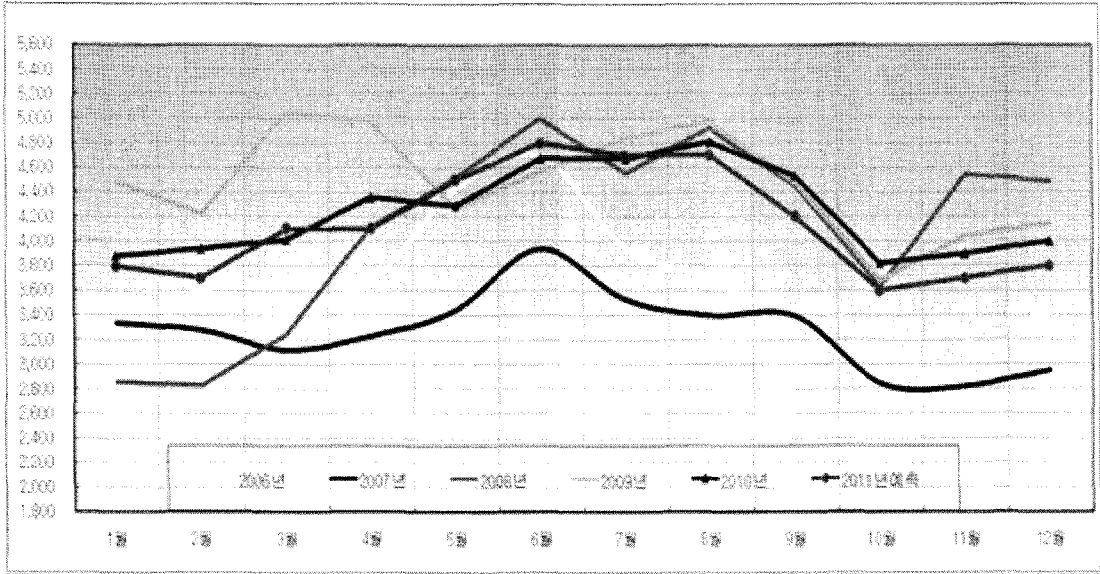
해 소비량 증가 폭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향후에도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민 1인당 돈육 소비량은 빠른 시일 내에 20kg은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 연도별 1인당 돈육 소비량변화 및 전망).

3. 돈육 소비량, 수급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가 쌀 위주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식단으로 바뀌면서 매년 돈육 소비량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 증가에 따른 건강문제가 이슈화 되거나, 안전성의 문제(환경 호르몬, 콜레라 및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 신종플루 등) 등으로 인

4. 돈가 현황 및 전망

올해 평균 돈가는 약 4,300원/지육kg(전국 비육돈 평균, 박피)으로 예상되어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고돈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1년에도 국내산 돈육 공급량은 증가하고, 돈육 수입량 또한 증가하겠지만 돈육 소비량의 증가에 힘입어 4,200~4,300원의 고돈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최근 5년간 월별 돈가 현황 및 전망(단위, 원/지육kg, 전국 비육돈 평균시세 기준)

5. 대한민국 양돈산업의 핵심 선결 과제

1) 양돈장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대한민국 모돈의 평균 PSY(모돈당 연간 이유두수)가 18두 정도이다. 복당 이유두수 9두 이하, 모돈 회전율 2.0이하 현재의 번식돈 생산성으로는 경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돈, 시설, 환경, 영양, 질병 및 사양관리 중 어느 하나만 개선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사양관리와 영양, 환경관리에 집중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돈의 유전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장기적으로 또 정부 차원의 투자로 종돈 개량 및 종돈장 육성 관리, 양돈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양돈 선진국들의 국가 평균 MSY가 22~24두이다. 우선 번식돈의 생산성을 PSY 25~25두 이상 향상시키고 이유후 자돈과 육성, 비육돈 관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MSY를 20두 이상 올려야 한다. 정부 또한 장기적으로 농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고돈가로 인한 농장의 여유자금, 정부의 투자 자금이 진정으로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사용되길 바란다.

2) 사료효율 개선과 생산비 절감

전체 생산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료비이다. 사료비 절감을 위한 최우선 방안은 사료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양관리를 통해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농장 곳곳에서 버려지는 사료 허실을 시설/관리 보완

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또 농장의 상황에 맞게 사료 급여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생산성(출하체중, 출하일령, 사료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약품비, 인건비, 분뇨처리비용 또한 적절한지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기록해야 낭비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장주는 다소 귀찮고 서툴겠지만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분석하여야 한다.

3) 육류 원산지 표시제 단속 강화 및 국내산 돼지고기 홍보

국산돼지기 고기 "한돈"! 우리 돼지고기에 이름을 붙여주고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방식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자조금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안전하고 신선한 국산돼지고기 이미지 구축 노력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돈육 소비가 주로 외식 소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제는 국내산돈육 소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4) 브랜드돈육 활성화 및 돈육 안전성 확보-돼지고기 이력관리제, 농장 HACCP

최근 먹거리 소비의 가장 주요한 트렌드

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이다. 양돈장 HACCP을 통해 생산자부터 신뢰를받을 수 있어야 하고, 브랜드를 통해 추적시스템까지 확보할수 있으면 국내산 돈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2011년부터 3년여에 걸쳐 준비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반드시 뿌리내려야 할 제도이다.

5) 친환경양돈장 육성 및 동물복지법 발효 대비

국내에서 양돈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 냄새, 낡은 건축물 및 시설로 인해 마치 환경 오염원처럼 취급 받는 양돈장의 이미지를 친환경적 이미지로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또 주변 이웃들과 공생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동물 복지법의 시행 또한 양돈농장들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소비자들 및 동물애호단체의 외압에 의해 부득이 시행하고 있다. 돈사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보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 및 대응을 고민하기 보다는 내 농장 내부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고 문제를 찾고 개선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그 답이 있다. 2011년에는 농장 현장에서 사랑하는 돼지와 함께 땀 흘리는 농장주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